

도, 신성장 동력 국비 확보 총력전

이원택 전북도 정부부지사
상용차·탄소 등 강점분야
터닝-포인트 전환 설정코자
정부 부처 찾아 반영 건의
탄소소재법 개정 협조 피력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 지역의 최대 강점을 보유한 상용차·탄소 산업을 터닝-포인트의 전환산업으로 설정, 지역산업 위기를 기회로 조성하고자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6일 이원택 정부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산업부 국·과장을 찾아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

했다.
먼저, 산업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을 차례로 찾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관련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핵심 기술개발, 시험·인증 기반구축 추진 등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구조 고도화 기회를 마련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국비 128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의 유사업종 재취업 및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을 요청했고, 탄소소재법 개정과 관련 현 정부에서 탄소 융복합 소재·부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핵심산업으로 포함된 탄소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탄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과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적극 피력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부처 예산편성(안)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그 이전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까지 진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 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드론관측 통합관리 성과보고 드론산업 중심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의장,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한 언론기관, 유관기관, 대학 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 성장을 위한 드론관측 통합관리 성과보고 및 드론기술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 등이 전시된 드론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도내 출전선수 중 첫 대회 3관왕 탄생

'수영' 조민, 여자 초등부 배영 50m 출전 김 획득

제13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도내 출전선수 중 첫 대회 3관왕이 탄생했다.
수영에서 조민 선수(전주자곡초)가 여자 초등부 배영 50m(S14)에 출전해 금메달 획득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육상트랙에서는 임진홍 선수(군산기계공고)가 남자 고등부 200m(T38) 금메달 목에 걸어 대회 5년 연속 2관왕

에 올랐다. 쌍둥이형제 임진현 선수는 남자 고등부 200m(DB)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최지호 선수(완주이서초)도 남자 초등부 200m(T38)에서 이석호 선수(전북맹아학교) 남자 초등부 200m(T38)에 출전해 각각 대회 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한편 수영에서 김시우 선수(전주초)는 남자 초등부 배영 50m(S14) 금메

달, 입식배구(전북해화학교) 충남에 0대 2 패배, 익일 3.4위전 동메달 각각 목에 걸었다
단체전에서는 농구(전주연합팀), 플로어볼(전주연합팀)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전북선수단은 16일 현재 금12, 은20 동17를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社 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본선 오후 2시 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납문 광장(풍납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장애인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시소,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형도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 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

도, '전북재정포럼' 개최

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분석과 대응을 위하여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전북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작년 10월 30일,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11%에서 15%로 4%p 인상되었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6%p 인상될 예정이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 보충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에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장수군 축구종합센터 유치 실패

1순위는 충남 천안... "아쉬움 속 자신감은 얻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제2NFC) 유치가 우선 협상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한 축구종합센터 우선 협상 대상지 3곳에 장수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지선정 위원회를 갖고 축구종합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지로 1순위 천안시, 2순위 장수시, 3순위 경주시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수군은 1·2차 관문을 뚫으며 선전했지만, 최종 장벽을 넘

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화려했던 5개월간의 도전이 끝이 났다.
류지봉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과장은 "그동안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도전할 수 있었다"면서 "작은 군이지만 이런 도전을 하면서 큰 힘됐고, 향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판에 정수를 넘어서 전북 도민들이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셨다"면서 "아쉽지만, 이번이 장수도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